

조선

한국과 중국의 선가차이는 무려 31.6%

2014. 3. 28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연비’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선가차이 확대

Eco-design을 핵심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선가차이는 확대되고 있다.

최근 Scorpio Bulkers는 한국(대한조선 4척, 성동조선해양 1척)이 수주한 180K급 Capesize 벌크선 5척을 적당 61.2백만불, 총 3.06억불의 가격으로 Resale을 통해 매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국 조선소가 잔고로 갖고 있는 Capesize 벌크선 Resale 가격은 두 달 전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Capesize 벌크선 Resale 가격보다 무려 31.6% 높은 수준이다. 두 달 전과 비교해 Resale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중국과의 선박가격 차이는 매우 크게 벌어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선박가격 차이 확대는 ‘연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Jinhai와 Baihai는 구형 엔진인 기계식엔진(MC Type)이 탑재돼 한국의 Eco-ship과 비교해 선가 할인폭이 대폭 커진 것이다. 중국이 건조한 선박은 향후 중고선 시장에서도 가격 하락폭이 커지게 될 것이다.

‘연비’, 한국 조선업 선가 프리미엄의 핵심

한국이 건조한 선박은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조선업의 Eco-design은 진화되고 있으며, 엔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이다.

Eco-design의 진화는 한국과 중국간의 선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핵심이 되고 있다.

대한조선, 성동조선해양과 같은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들은 Eco-design에 기술개발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벌크선 수주량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벌크선은 선복량이 무려 1만 척이나 되는 Volume 시장이다. 한국 중소 조선업체들은 ‘연비’를 바탕으로 벌크선 수주를 늘릴수록 벌크선 수주 경쟁구도는 한국과 일본이 경합하면서 중국은 점차 경쟁에서 이탈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 조선업이 벌크선 수주경쟁에서 이탈할수록 벌크선 선가는 상승세가 빨라질 것이다.

중국조선업은 ME(전자제어)엔진을 탑재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탑재했다 해도 설계능력 부족으로 Design이 최적화되기는 어렵다.

한국 조선업에 있어 벌크선 건조에 따른 비용 증가는 제한적인 만큼, 선가가 오를수록 벌크선 건조의 수익성은 향상되어 갈 것이다.

[표1] Resale Price of Korean Shipyard 31.6% higher than China

Type	DWT	Yard	\$Mn	\$/DWT	Engine	Sold
Bulk	180K	Daehan	61.2	340.0	ME	2014-03
Bulk	180K	Sungdong	61.2	340.0	ME	2014-03
Bulk	176K	Jinhai	46.5	264.2	6S70 MC 6.2	2014-01
Bulk	180K	Baihai	46.5	258.3	6S70 MC 6.2	2014-01

자료: Clarkson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